

## 김포 공항, 수송량 11% 증가

김포공항을 통한 승객 및 화물의 운송량이 지난해 보다 11% 이상 늘어나는 등 항공수송량이 IMF 이전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18일 서울 지방항공청이 집계한 '4월 김포공항 항공수송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승객수송량은 258만5천명으로 지난해(232만7천명)에 비해 11.1%가 늘어났으며 특히 국제선은 일본, 동남아, 유럽, 미국 등 21개 지역에 115만명을 수송, 전년도보다 16.9%나 증가했다.

지난달의 승객수송량은 IMF 이전인 97년 4월(297만9천명)의 86.8% 수준까지 올라선 것이며 국제선만 비교하면 98.4%로 거의 근접했다. 화물 역시 지난 4월 한달 동안 작년 같은 기간(13만6천t)에 비해 11.1%가 늘어난 15

만1천t이 항공편으로 수송됐다.

이같은 수송량 증가에 따라 여객기 탑승률도 전년도 보다 10% 이상 높아진 73.7%를 기록, 항공기 대당 이용자 수의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한편 서울 항공청은 항공수요의 증가에 따른 지연운항 해소 및 안전운항을 위해 주기장을 현재의 93개에서 104개로 늘리고 국제선 2청사의 출발탑승구도 현재의 2개에서 4개로 확충할 방침이다.

## 델타 항공에서 매각한 구형기체, 화물기로 재취역

프랫 앤 휘트니와 RFC(Republic Financial Corporation)는 델타 항공에서 퇴역하고 있는 보잉 727-200의 소유권을 공동으로 획득하는데 성공했다.

델타 항공은 보유하고 있던 보

잉 727 기체 전체를 2005년까지 퇴역시킬 예정이며 올해에만 20대의 기체를 퇴역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델타 항공은 퇴역하는 727기를 따로따로 매각하지 않고 스페어용 엔진 39기와 함께 한 구매자에게 일괄적으로 매각한 다음 순차적으로 퇴역시킬 예정이었고 프랫 앤 휘트니와 RFC가 델타 항공의 퇴역 727기 전체에 대한 권리를 획득했다.

1억5천만에서 2억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이번 계약에서 델타 항공은 향후 6년간 시기에 따른 항공기 가격을 보장받았다. 1972년에서 1982년 사이에 생산된 이 727기체들은 비행시간이 4만에서 8만 시간 사이이며 비행횟수는 2만 5천에서 6만회에 달했다.

이번 계약의 공동 계약자로서 기골부분을 구매하게된 RFC는 70대의 727기를 화물기로 개조해서 재판매할 예정이며 기령이 오래된 기체 일부는 스크랩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프랫 앤 휘트니는 콜럼비아 제작장에서 엔진을 개비하고 화물기용으로 필요하지 않은 엔진들은 예비용 엔진으로 판매하기로 했다.

## 건교부, 한-UAE 주 4회 운항

건설교통부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김포공항 수송량이 지난해 대비 증가하고 있다

한-UAE 회담에서 양국 항공사들이 주 4회 범위 내에서 상호운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한-UAE는 정기 항공노선 개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동남아 경우 운항권리(Stop Over) 행사 등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양국을 연결하는 정기 항공노선의 개설이 가능하고 특히 중동지역 상업중심지인 UAE에 중간 기착지를 확보하게 돼 이집트, 리비아 등 중동지역은 물론 향후 아프리카 진출이 보다 용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일본, 2000년부터 상공 통과료 징수

일본은 내년 1월부터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여객기를 대상으로 관세서비스료 명목으로 상공 통과료를 징수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지(日本經濟)신문이 지난 19일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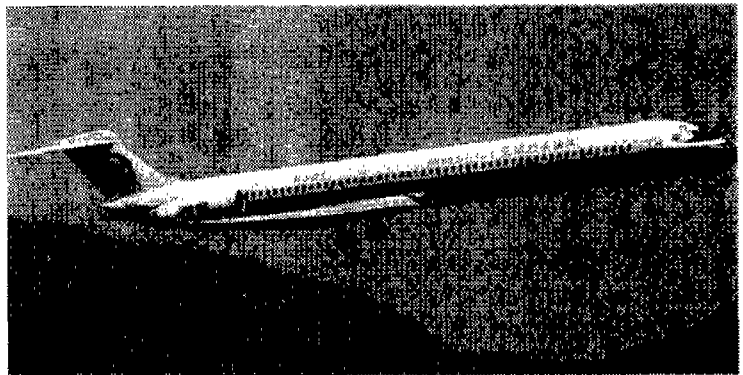
통과료는 지정된 구역을 지나가는 여객기에 대해 대당 8만9,000엔으로 연간 50억엔을 넘을 전망이다. 그 대신 일본 공항에 이·착륙하는 여객기에 징수하고 있는 시설 이용료는 인하할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무료로 일본 상공을 통과하고 있는 여객기에 상공통과료를 징수함으로써 관세서비스 이용자 부담을 공평히 하는 한편, 일본 항공회사의 운항 비용을 연간 30억엔 이상 줄여 운임인하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

일본 운수성은 자국 상공을 통과하는 여객기에 대해서는 8만9,000엔을 받으나 기타 태평양과 동해의 일본 관제영역을 통과하는 여객기에 대해서는 대당 1만6,000엔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와 조정에 들어갔다.

### 중국 동방항공, 제주직항노선 운항

중국 동방항공(China Eastern Airline)이 제주직항노선에 주 2회 부정기 항공편을 운항기로 해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에 활성화 될 전망이다.



중국동방항공이 제주직항노선에 여객기를 운항할 예정이다

동방항공 서울지사는 오는 28일부터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중국 산둥(山東)성 지난(濟南)시와 제주노선에 공급석 142석의 MD80기종 항공기를 운항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항공사는 이미 작년에 제주에 지사 사무실용 건물을 임대해 놓고 있는데 운항실적을 파악한 뒤 6월중으로 지사를 개소할 예정이다.

한편 동방항공은 지난 3월 춘절 연휴를 전후해 중국 칭따오(靑島)-제주노선에 4편의 전세기를 운항기로 했다가 관광객을 제대로 모집할 수 없다며 운항을 취소했다.

서울지사 관계자는 “현재 이 노선에 대해서는 매월 관광객을 모집한 뒤 부정기적으로 항공기를 운항할 계획”이라면서 “오는 9월까지 탑승실적이 좋을 경우 동계 스케줄부터는 정기편으로 개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